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절친사이 권상우·김성수 패션무비 나란히 캐스팅

절친한 사이인 배우 권상우와 김성수가 12일 밤 10시 첫선을 보인 남성 라이프스타일채널 XTM의 패션무비 '캘리포니아-하이눈'에서 호흡을 맞췄다.

XTM이 CJ오쇼핑 셀렙샵(CELEB SHOP)과 손잡고 제작한 '캘리포니아-하이눈'은 권상우와 김성수가 한 여인을 놓고 펼치는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여주인공 캘리 역에는 신인 배우 사라가 캐스팅됐다.

XTM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무대로 권상우는 거친 터프가이 이미지를, 김성수는 영국 신사 같은 이미지를 통해 상반된 매력을 발산했다"며 "패션의 감성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색다른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내가 왜 이 고생해야 하나 일본서 혼자 많이 울었죠"

일본 진출 모험 선택한 태진아

"거울과 단둘이 이야기도 많이 해 日 유선방송 차트 1위 보람 느껴"

"일본 진출 초기 언어때문에 호텔에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나'라는 생각에 거울과 단둘이 얘기도 많이 했고요."

지난해 8월 일본에서 싱글음반 '스마나이(미안하다)'로 데뷔한 태진아가 최근 국내에서 신곡 '사랑은 돈보다 좋다'가 담긴 신보를 발표했다.

그는 가수인 아들 이루가 일본에서 상을 탄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사랑은 돈보다 좋다'를 작곡해 선물해줬다고 말했다. 태진아는 '스마나이'가 일본 유선방송 리퀘스트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얻은 덕택에 지난해 12월 전국유선음악방송협회 주최 '제42회 일본유선대상'에서 유선협회장려상을 받았다.

"이루가 수상을 축하한다며 이 곡을 써서 선물해줬어요. 일본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곁에서 지켜준 가족과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들 덕택이에요."

'사랑은 돈보다 좋다'는 신구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을 곡이라는 게 태진아의 설명이다.

그는 "이루가 '우리 세대와 아빠 세대가 모두 좋아할 노래'라며 들려줬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며 "지금껏 내 노래는 후렴구에서 높게 내지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멜로디가 편안하게 들릴 것이다. 후배 가수 마야가 피처링 해준 버전도 따로 실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써 준 곡인 만큼, 뮤직비디오도 화려한 출연진을 등장시켜 공들여 찍을 예정이다. 그는 2000년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일본 고베에서 찍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껏 '잘났어 정말', '이유가 뭘까' 등의 뮤직비디오를 잇따라 제작해 여느 성인 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16~17일 서울에서 촬영될 '사랑은 돈보다 좋다'에는 강호동, 박원숙, 마야, 장윤정, 김지선, 조혜련, 마이티 마우스, 성진우, 김나운을 비롯해 일본 배우 마쓰다 히토미가 등장한다.

태진아는 영화 '보디가드'와 비슷한 스토리라고 소개했다.

"극중 유명 가수인 마야가 돈으로 사랑을 얻으려는 재벌 마쓰다 히토미의 구애를 받아요. 하지만 전직 가수 출신 보디가드인 저를 사랑하죠. 사랑의 가치가 돈보다 소중하다는 내용입니다. 하하."

이번 새 음반에는 '사랑은 돈보다 좋다' 외에도 '홀로 된다는 것', '빗속의 여인', '포기하지마' 등 트로트가 아닌 노래들이 리메이크돼 수록됐다.

그는 국내 음반 활동에 이어 6월에는 일본에서 새 싱글 음반을 낸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와 '동반자'를 일본어로 개사해 수록한다.

그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곡들인 만큼 진짜 태진아를 보여줄 음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아이돌 가수처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DJ투컷, 미쓰라진, 타블로.

새 음반 낸 3인조 그룹 에픽하이

3인조 그룹 에픽하이(타블로, DJ투컷, 미쓰라진)는 최근 1년 동안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타블로와 DJ투컷이 각각 결혼했고 DJ투컷은 군에 입대했다. 또, 이들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독립 레이블 '맵 더 솔'을 차렸다. 하지만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로 복귀했다.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팬들과 인터넷 직거래로 음반 유통도 해봤고 유튜브, 아이튠즈 등을 통해 우리 음악을 해외에 알리며 '미디어 2.0' 시대의 파워도 느꼈죠. 팬들과 소통하는 진보적인 방법이 많다는 걸 배웠어요."(타블로)

해외에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며 얻은 성과도 있다고 자평한다. 지난해 일본과 미국에서 투어 공연을 했고, 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미뎀음악박람회에서 쇼케이스도 펼쳤다. 또 지난달 미국 CNN 프로그램 '토크 아시아(Talk Asia)' 녹화도 했다.

>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사람들에게 꿈·희망 불어넣고 싶어"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다시 소속사로 복귀한 것은 TV, 라디오 등 올드 미디어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음반은 2007년 4집 때처럼 주제도 사운드도 가볍고 대중적이다. 지난해 낸 6집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터라 '정상의 에픽하이로 돌아왔다'는 평도 나온다.

전곡을 타블로가 작곡하고 미쓰라진이 공동 작사 및 편곡했다. 타이틀곡 '런(Run)'은 질주하는 리듬에 문학적인 가사를 더한 곡이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사람들에게 가슴에 꿈이 찰 때까지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자는 노래다.

배우 강혜정과 결혼한 타블로는 5월 초 태어날 아이가 음악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이 곡을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타블로는 결혼이 자기 음악 생활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태어날 아이 덕택에 사랑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는 그는 "아이 태명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아지 '볼트'인데,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고 키우겠다. 장난감도 만들어서 놀게 하는 등 옛날식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에픽하이는 이번 음반 작업을 마쳤지만 또 다른 음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미쓰라진은 "곧 데뷔할 같은 소속사 아이돌 그룹 인피닛의 랩 녹음 디렉팅을 맡고있다"며 "타블로 형과 함께 인피닛이 손수 음악을 만들도록 가르칠 것이다. 여느 아이돌 댄스 그룹과는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